



창립 10돌, 불자약사보리회 100만인 투약 현장

“  
어르신 건강은  
전희가 지켜드려요  
”

민족의 애환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 짙어 가는 단풍의 가을 속 10월 12일 독립공원은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손길로 가득했다. 불자약사보리회(회장 유천수)가 어르신 의약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날은 불자약사보리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지난 10년 동안 총 100만 명에게 의약봉사를 해왔다. 이날 독립공원에는 30명의 약사들과 의약봉사를 받기위한 2000명의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아픈 곳을 얘기하는 곳에서도, 약왕보살(藥王菩薩)을 만난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힘든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설됐다. 홀로 사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오늘날만큼 약사들이 아들·딸·손자손녀를 대신했다. 정홍제(75·북아현동) 할아버지는 “어깨가 자꾸 결리고, 쭈서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오늘 약손을 받았다. 약손을 해준 약사분이 마치 우리 손녀딸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 집에 가서도 꼭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성주현(74·아현동) 할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 수지침을 맞았다. 평상시 친구들과 공원에서 비록을 자주 두는데 의료봉사가 있어 함께 치료를 받았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 “바쁘다 바빠!”**

약사들의 활동 뒤에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는 연령을 불문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공원 한편에는 끊임없이 약을 쪼개 가루를 내고, 무게를 달아 약봉지에 담은 자원봉사자들과 질서유지를 위해 스스로 나선 어르신들, 수지침을 뽑으며 소독해 주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고양시에서 아들 임유신(18)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온 홍정자(47) 씨는 아들과 나란히 앉아 약을 반으로 쪼개어 한 군데로 모으고 있었다.

**#작은 약봉지에 큰 행복을 담고**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지끈거리서...” 동네약국에 가면 흔히 들리는 말들이 공원에서 들린다. 약사 10여명이 일렬로 앉아있는 진료대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줄지어 들어온다.

이마에 손을 대보고,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하는 모습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언뜻 비쳐진 것은 왜일까.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공원을 나서는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홍제동에 사는 손기정(75)·최영순(71) 부부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 처지에 늘어 갈수록 잔병치레가 많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힘들어 나들이를 겸해 공원에서 약 타가는 기쁨이 크다”고 말했다. 손기정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최영순 씨는 요실금과 허리, 다리 통증으로 수지침 등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다. 손기정 씨는 “우리 부부는 절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진료를 받고 너무 감사해 한다. 종교에 관계없는 봉사에 나까지 절로 뿌듯해진다”고 말했다.

홍정자 씨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도 와야 한다. 작은 것이나마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적사에 다니는 도반이 함께 봉사활동에 가고 해 인연이 닿아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그녀는 “아들도 작년에 몽골의료봉사를 가는 등 봉사활동에 의욕이 많다. 교육적으로도 주말마다 봉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지침, 약손 등 다채로운 봉사**

이 날 불자약사보리회의 봉사는 의약봉사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큰 마당 아래에서는 어르신들 안마를 해드리는 코너와 수지침을 맞을 수 있는 코너가 개

열지어 진료받는 어르신 행렬에도 봉사자들과 약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 자신의 노곤함이 어르신들의 작은 행복임을 안 깨달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도 보살행복에 곁이 나고 날이 저물었다. 공원에 수북히 쌓인 빈 약통. 그 약통 하나 하나에는 우리사회 소외되는 모든 이를 위한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Tip 여기서 잠깐!**

**Q. 의사 처방없이 직접 투약 가능한 까닭은?**

**A.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의 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약사법 23조 3항 4호인 사회봉사에 의한 예외 조항에 의해 가능하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의 경우 대부분 관절염과 신경통 위주이기 때문에 표준처방에 의해 영양제와 일반약, 자연요법 등을 처방하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701호 해군중앙법당 '진필승 주지 법사'를 '진필승 주지 법사(실원 스님)'으로 정정합니다.

**불자약사보리회 유천수 회장**

**“의사 단체와 연계 필요...더욱 다양한 활동 계획”**



“불교계 의사봉사단체와 약사봉사단체 간 연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자약사보리회 유천수 회장은 “천주교의 경우 김수환 추기경이 중심이 된 라파엘클리닉에서 의료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의·약사단체 간의 연대를 강화해 규모를 키우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사회봉사에 한해 약사의 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향후 다양한 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펴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불자약사보리회는 1998년 창립돼 2001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NPO)로 등록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저소득층 의료봉사(독립공원), 매주 월·화·금 서울역 노숙자진료소 운영, 매주 목요일 마포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외국인주노동자 의료봉사(독립공원) 등 꾸준한 활동을 펴고 있다. 2004년부터는 복인도 다림살라, 슈라바스티 등에 매년 각각 3000명씩 의약품을 지원하고, 해외 재난 구호봉사단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약사여래의 행보를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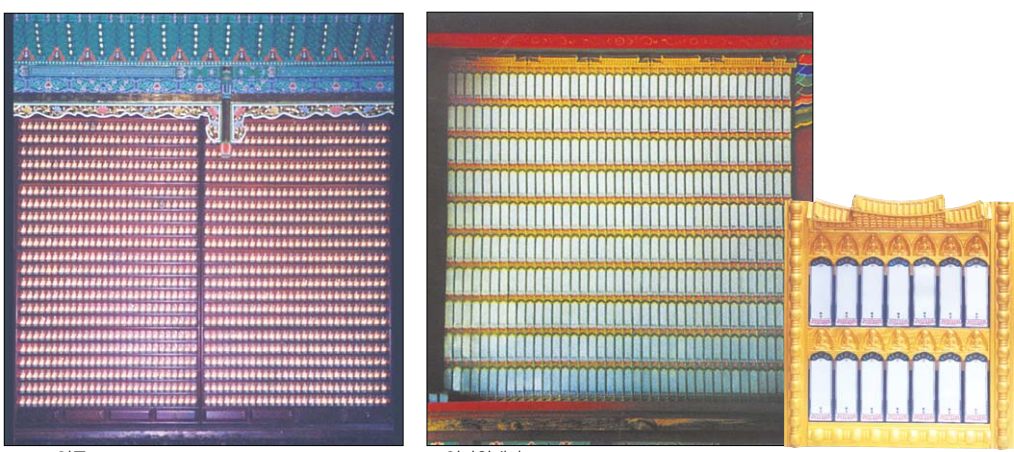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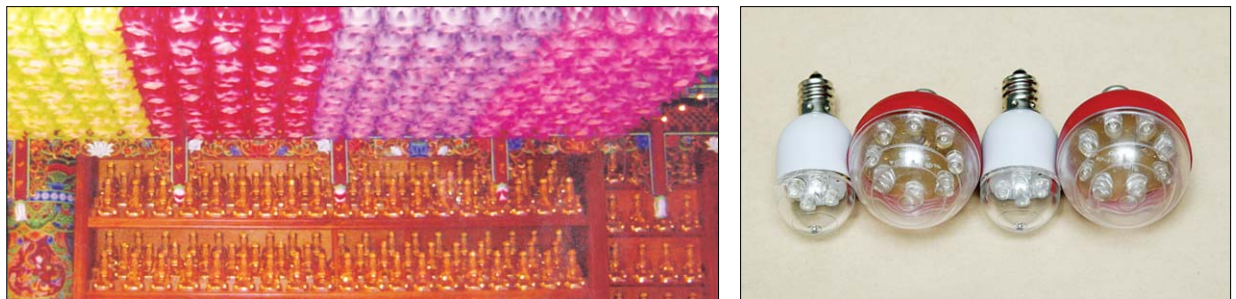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1LED인등 1영가위패단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上下 조절하며 명멸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 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 불교 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욱(진성) 합창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